



평실상부한 서구문화재단의 대표 공연  
**브런치 콘서트**가 새로운 이름으로 찾아온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특집 상설무대로 진행되는 모닝 콘서트는 2013년 첫선을 보인 이후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브런치 콘서트'의 명성을 이어받은 공연입니다.

객석이 아닌 무대 위에 올라앉아 아티스트의 숨소리, 땀방울마저 느낄 수 있는 기존의 공연 형식과 커피&브레드를 즐기는 브런치 타임은 그대로 유지되며, 재즈부터 아코디언, 생황에 이르기까지 보다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 공연이 펼쳐집니다.

**모닝 콘서트**는 200명 한정 예약제로 진행되며, 9월과 12월 공연은 보다 많은 관객이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객석 관람으로 진행 됩니다.

## 2016 인천서구문화회관 기획공연 프로그램

### SEASON I

- 어린이날 특집  
뮤지컬 <후토스 - 생명의 씨앗>  
5. 5(목)
- 어버이날 특집  
<립나이팝스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후 콘서트>  
5. 21(토)
- 청소년 극장 나들이 시리즈 I  
년별 액션 퍼포먼스 <파이어맨>  
6. 22(수) ~ 7. 1(금)

### SEASON II

- 가을 특집  
<불후의 명품 콘서트>  
10. 22(토)
- 청소년 극장 나들이 시리즈 II  
익스트림 퍼포먼스 <블라임>  
11. 22(화) ~ 26(토)
- 연말특집  
<2016 굿바이 콘서트>  
12. 10(토)

### 상주단체 크리에이티브

- 상주단체 공동기획  
해설이 있는 발레 콘서트 <신밧드가 부릅니다, 열려라 발레>  
6. 4(토)
- 상주단체 공동기획  
동화발레 무용극 <신데렐라>  
8. 26(금) ~ 8. 27(토)
- 상주단체 공동기획  
동화발레 무용극 <정화 신은 고양이>  
10. 15(토)
- 상주단체 공동기획  
판타지 발레전막 <호두까기 인형>  
12. 23(금) ~ 12. 25(일)

# 음악으로 여는 아침 모닝 콘서트 Morning Conce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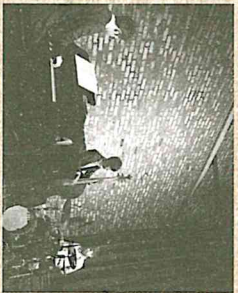
2016. 4. 27 ~ 12. 28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0시 브런치 타임 | 오전 11시 공연관람  
 예약문의 032.580.1198

이름다운 재즈 선율로의 초대

### <송인성 재즈 트리오>

4. 27(수)

'송인성 재즈 트리오'는 2013년 1집 '솔리테리제' 발매 이후 수차례의 단독 콘서트를 개최, 서울재즈 페스티벌, 올댓재즈 등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콘서바토리를 졸업한 팀의 리더 송인성은 이번 공연에서 서울예술대학 출신의 드러머 김대호, 피아니스트 전용준과 함께 활동한 재즈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베이스 송인성 | 드러머 김대호 | 피아노 전용준  
입장료 전석 10,000원 장소 대공연장 무대 위

달콤한 목소리로 희망을 노래하다

### <하니 보이즈>

5. 25(수)

'성악을 전공한 젊은 연주자들이 이루어진 하니 보이즈'는 꿈과 같이 달콤한 목소리로 희망을 노래하는 전문합창단이다. 그들은 디지털 기술과 전자음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 사람의 목소리가 지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부드러운 하모니와 이야기가 있는 친숙한 음악으로 관객에게 다가간다.



지휘자 김태광 | 소프라노 임현아, 이재영, 김리현 | 알토 정하은, 신수연 테너 노윤선, 이명호 | 베이스 조래욱, 김옥림 | 반주 김민지  
입장료 전석 15,000원 장소 대공연장 무대 위

긴밀한 호흡의 협연 4중주

### <양상블 그리오>

8. 31(수)

Grio(그리오)는 과거 아프리카에서 민족의 구비설화를 이야기나 노래로 들려주던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들은 글을 쓰거나 읽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입으로 전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양상블 그리오의 연주자 모두는 음악의 전승자가 되어 음악의 역사와 문화, 더 나아가 작곡가의 의도와 음악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전해주려 한다.



바이올린 노윤정 | 비올라 송근영 | 첼로 김연진  
입장료 전석 15,000원 장소 대공연장 무대 위

세계 최정상 아코디언 영웅

### <마티나스 아코디언 콘서트>

9. 28(수)

리투아니아 출신 아코디언리스트 마티나스 레비츠키스는 2010년 '리투아니아 갓 탤런트'에서 우승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아코디언계의 월드컵 '루포 몽디알'에서 우승하는 등 재능 있는 젊은 뮤지션으로서의 면모를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다. 그는 바벨다에서부터 엔니오 모리코네, 레이디 가가에 이르기까지 동성향 스펙트럼의 레퍼토리로 전세계의 청중에게 다가가고 있다.



입장료 전석 25,000원 장소 대공연장 객석관람

자매의 양상블 - Music for TWO

### <베리오자 피아노 듀오>

11. 30(수)

피아노 듀오 '베리오자(Berioza)'는 피아니스트 전현주, 전희진 두 자매가 1997년 결성한 팀으로 러시아의 상징인 자작나무를 뜻하는 베리오자를 팀명으로 하여 러시아 정부의 피아니즘을 선보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2010년 ARD 국제 콩쿠르의 '피아노 듀오 부문'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두 자매의 환상적인 양상블이 모던 콘서트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피아노 전현주, 전희진  
입장료 전석 15,000원 장소 대공연장 무대 위

세계적인 타악 연주자

### <최소리의 토크 콘서트>

12. 28(수)

타악 솔리스트 최소리는 토크를 백두산의 드러머를 시작으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 도 인정하는 타악연주자로 성장해왔다. 이번 공연은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연주 기법으로 '타악계의 기인'으로 불리는 최소리의 목소리와 연주를 함께 들을 수 있는 민남의 시간이 될 것이다.



입장료 전석 20,000원 장소 대공연장 객석관람

퓨전국악

### <양상블 다니루의 [단, 하루의 노래]>

7. 27(수)

4인조 어쿠스틱 국악 그룹 '양상블 다니루'는 국악을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대중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거라 결심되었다. 음악이 갖는 아름다운 여운과 마음의 울림을 지향하는 '양상블 다니루', 국악기와 서양의 클래식 악기가 만나 만들어내는 그들만의 독창적인 음색은 대중에게 아름다운 기억을 선물한다.



가야금 정여훈 | 바이올린 오현진 | 해금 조은혜 | 작곡·건반 아예민  
입장료 전석 15,000원 장소 대공연장 무대 위

### 신비로운 한국의 소리 <김효영 생활 듀오>

10. 26(수)

진기한 악기뿐만 인식되면 생활을 클래식처럼 하게 연주하며, 대중성 높은 생활 밀착형 음악으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김효영의 따뜻한 감성적인 무대가 모닝 콘서트에 찾아온다. 김효영 작곡의 '고즈넉', 박경훈 작곡의 'Peaceful Mind', '영향을 위한 푸리' 등 저작곡 외에도 다양한 음악을 연주할 예정이다.



생활 김효영 | 작곡·피아노 박경훈  
입장료 전석 15,000원 장소 대공연장 무대 위

음악으로 여는 아침  
**모닝콘서트**  
Morning Concert